



인천소방본부, 전문가 통해 '강철 소방관' 양성

인천소방본부(허석곤 본부장)는 '소방관의 강인한 체력이 곧 시민 안전이다'라는 모토로 강철 소방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지친 소방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적인 운동을 지도해 체력 단련 활동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관 개인의 체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과 재난 대응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소방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교육과 훈련으로 단련한 소방대원의 강철 체력과 기술이 촌각을 다투는 인명구조 현장에서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관의 강인한 모습을 달력으로 제작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담아 내년에 지역 사회와 시민에게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4월 12일 선발심사를 시작으로 8개월간 진행된다. 이날 심사에서 강철 소방관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4개월간 전문가의 운동 지도 아래 강인한 체력을 만든다. 운동 지도는 2020년 몸짱 소방관 달력 제작에 재능 기부로 참여해 지난해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된 조민수 보디빌딩협회장과 이동진 터닝포인트짐 대표, 윤종묵 팀윤짐 대표가 나서 돕기로 했다. 이들은 소방관이 체계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운동시설과 전문 트레이너 등을 지원한다. 강철 소방관의 홍일점인 최연진 반장은 "소방관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직원들과 함께 운동하고 싶어 지원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강한 체력을 만들어 현장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1 선발된 강철 소방관들 2, 3 체력 단련하는 강철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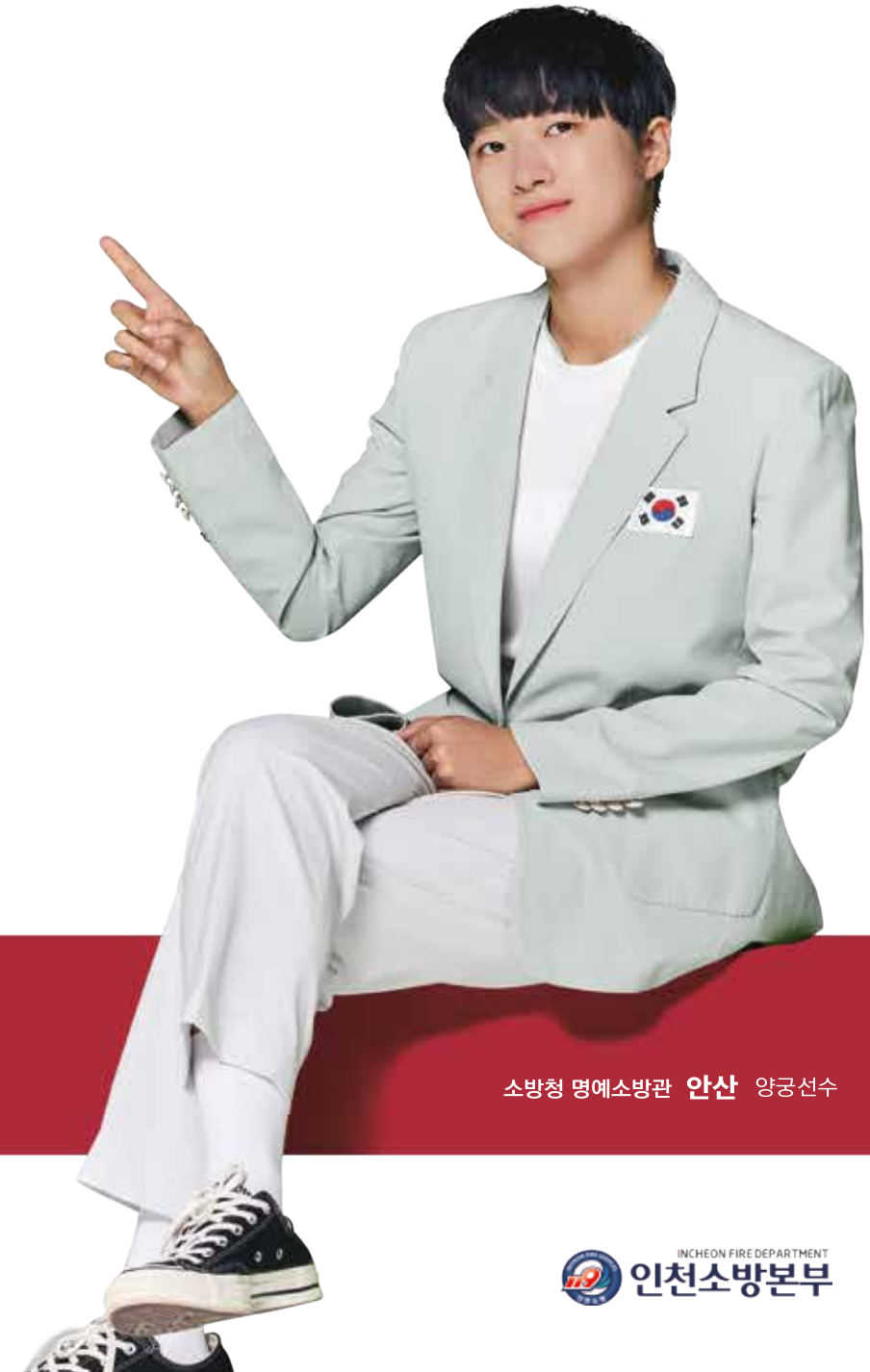
화재경보기



소화기



전체 화재 사망자
46%가
주택화재로 발생



소방청 명예소방관 안산 양궁선수

